

## 차기회장에 金炳洙연세대총장 선출 제33회 科總 정기총회서, 을 사업계획 및 예산도 확정



▲ 4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3회 과총 정기총회에서 崔亨燮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崔亨燮)는 지난 2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99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회장(제13대)에 金炳洙연세대총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97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9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학회 학술활동 증점 육성 ▲과학기술의 국제화 추진 ▲과학기술의 대중화 추진 및 과학기술봉사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으로 △과학기술정책개발사업 △학회 학술활동 육성 및 정보화추진사업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고급 두뇌 활용사업 △남북 및 세계 한민족과학기술 교류추진사업 △과총 장기발전계획추진사업 △회원단체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관개정(안) 및 임원선출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崔亨燮과총회장, 閔寬植과총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 金基衡 朴肯植 金始中 鄭根模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 연구기관 대표, 회원단체 대의원 등 4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李傑三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蔡永福 한국과학기술원 부원장의 '과학기술인의 신조' 낭독으로 시작, 崔亨燮과총회장의 개회사가 있는 후 유공자 시상에 이어 李傑三사무총장의 회무보고를 거쳐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崔亨燮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 극대화만이 이 어려운 경제난

국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책을 천명하고, 대통령 스스로 과학기술 정책만은 직접 챙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우리 5백만 과학기술인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 과학기술인도 어려운 국가경제와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과학기술'이 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거국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산업기술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崔회장은 이어 "과총은 지난 1966년에 창립된 이래 30여년에 걸쳐 과학기술인의 총화와 결집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력을 고양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3백42개 단체회원을 포용하는 거대 집단으로 성장하여 명실공히 2천년대 과학기술주역으로서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과총 차기회장 선출은 개정된 과총임원 선출규정에 따라 崔亨燮회장, 閔寬植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 등 당연직 선거인 3명과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뽑은 각 부문별 선거인 3명씩을 포함, 모두 18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金眞一·朴貞浩감사는 유임됐다.

이날 과총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金



▲ 제33회 과총 정기총회 리셉션에서 權肅一 과기처장관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炳洙연세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를 3년 남긴 시점에서 회창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전제하고 “기초과학 진흥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과학기술 진

문 생활과학부), 趙亨宰기자(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 辛長淳처장(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본부관리처) 등 6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과총 權光仁부장(출판본부) 李昌圭처장(기획조정실) 李在永과장(관리본부) 등 3명에게 20년 근속상, 吳美

흥과 홍보 및 과총 발전에 협조해 온 朴潤柱 사무관(과학기술부), 田恒秀 차장(국민일보 생활과학부), 崔壽默기자(동아일보 정보산업부), 申東濤 기자(한겨레신

珍·安惠珍(총무본부) 등 2명에게 5년 근속상을 수여했으며 회원단체 사무국의 李長桓사무국장(공기조화냉동공학회), 全美花과장(한국기술사회) 등 2명에게는 표창패가 주어졌다.

또한 총회가 끝난 뒤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리셉션에서 權肅一과기처장관은 “과총은 지난 30여년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왔다”고 치하하고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창조해 가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과총이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⑤7

### 金炳洙 차기회장 약력

제13대 과총 회장으로 선출된 金炳洙연세대총장(62세, 강원도 원주생)은 연세대 의대, 하버드대 의대 포스트닥과정을 거쳐 지난 '85년 일본 국립 岡山대 의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 70~74년 하버드대 의대 전임강사
- ▲ 74~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78~93년 연세 암센터 원장
- ▲ 94~96.7월 연세대학교 대외부총장
- ▲ 96.8월~현재 연세대학교 총장
- ▲ 89~93년 대한암학회 이사장, 부회장
- ▲ 93~94년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회장
- ▲ 85~현재 WHO·통계청·보건복지부 자문위원
- ▲ 91~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증진회원
- ▲ 95~현재 대한암협회 이사장
- ▲ 96~현재 과총 부회장, 성곡학술문화재단 이사
- ▲ 97~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대한의학회 자문위원

### 초대 姜昌熙과학기술부 장관 科總예방



▲ 초대 姜昌熙과학기술부 장관은 3월6일 과총을 방문하여 崔亨燮회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초대 姜昌熙과학기술부 장관은 3월 6일 과총을 방문하여 崔亨燮회장, 閔寬植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 金炳洙차기회장, 趙完圭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